

2024. 3. 8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

뷰티패션산업과

권소현

02-2133-8761

패션산업팀장

허선주

02-2133-8774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 : 5쪽

관련누리집

www.seoulfashionweek.org

### 2024 F/W 서울패션위크 563만불 수주상담... 미국대만이태리 러브콜 다(多)

- 지난달 열린 ‘서울패션위크’ 참여 브랜드·해외 바이어 상담, 직전 대비 9.5% 증가
- 패션쇼 브랜드 선정에 ‘글로벌 잠재력’ 고려, 바이어는 韓브랜드 구매이력 검증 강화
- 2월말 올해 참여한 6개사 ‘코테리뉴욕’에 공동관... 9월, 2025 S/S 서울패션위크
- 시 “서울패션위크, 국내 브랜드가 해외 진출하는 토대될 수 있도록 진화 거듭 중”

“매년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‘성수’에 들렀다. 이번 시즌엔 새로 도입된 쇼룸 투어와 성수 일대를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‘패션맵’을 통해 멋진 브랜드를 만날 수 있었고, 이를 계기로 10만불 규모의 바이어를 예정하게 됐다.” - 태국 매치박스 그룹 CEO 키티삭 차이솜사쿨 (Kittisak Chaisomsakul)

\*매치박스 그룹(Matchbox Group): 태국에 15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대형 패션 편집샵 체인

- 지난달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, 성수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2024 F/W 서울패션위크(Seoul Fashion Week)에서 K-패션 브랜드 대규모 수주 상담이 이뤄져 해외 시장 진출의 토대가 마련됐다.
- 서울시는 올해 F/W 서울패션위크(2.1.(목)~2.5.(월))에서 1,179건, 563만불의 수주 상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. 직전 시즌과 대비해 9.5% 증가한 규모로 시는 ▲글로벌 진출 가능성 ▲해외 수주 성사율 ▲장소 다양화, 세 가지 키워드 변화를 추구한 결과로 보고 있다.

- 올가을과 겨울 패션 트렌드를 미리 만나볼 수 있었던 ‘2024 F/W 서울패션위크’에는 대한민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87개 사가 참여했다.

<패션쇼 브랜드 선정에 ‘글로벌 진출’ 잠재력 고려, 바이어는 한국브랜드 구매이력 검증 강화>

- 먼저 이번 서울패션위크는 패션쇼 참가 브랜드 선정 시 해외 심사위원을 영입하고 해외 매출실적 평가 배점을 확대(10→ 20점)하는 등 브랜드의 ‘글로벌 진출 현황과 가능성’에 무게를 두고 추진됐다. 최종 선정된 21개 브랜드는 K-패션의 트렌드를 선보이며 수준 높은 런웨이를 펼쳤다.

- 그 외 3개 브랜드(▲카루소 ▲슬링스톤 ▲존앤321)가 오프쇼(디자이너가 외부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패션쇼) 형태로 참여하여 패션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. 시는 앞으로 서울패션위크 오프쇼에 참여하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오프쇼의 비중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.

- 참가 브랜드를 꼼꼼하게 선정한 만큼 바이어 선별도 까다롭게 진행했다. 해외 바이어 초청 시 한국 패션 브랜드 구매이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으며, 바이어가 쇼룸으로 찾아가 진행하는 방문형 수주 상담 프로그램 ‘패션 쇼룸투어’도 도입했다.

- 이번 시즌에는 글로벌 백화점 체인 ▲하비 니콜스(Harvey Nichols) ▲레인 크로포드(Lane Crawford)와 편집샵 ▲뉴욕 쓰리엔와이(3NY) ▲베를린 안드레아 무르크디스(Andrea Murkdis) ▲타이베이 니하우(Nihow) 등 한국의 패션 브랜드 구매 이력이 높은 바이어가 참여했다.

<국내 브랜드-해외 바이어간 563만불 수주 상담... '코테리뉴욕' 서울패션위크 공동관 참가>

- 서울패션위크 기간동안 국내 84개 패션 브랜드(의류, 신발, 가방, 주얼리)와 23개국 101명의 해외 바이어 간 563만불의 수주 상담이 이뤄졌으며, 미국이 평균 상담 규모 25만불로 가장 높은데 이어 대만 · 이탈리아 · 사우디아라비아 · 일본 · 영국 순으로 뒤를 이었다.
  - 시는 수주 상담이 향후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.
  
- 이번 패션위크 기간에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'패션 성지' 성수를 거점으로 한 패션쇼, 해외 바이어 쇼룸 투어를 비롯해 패션·뷰티 명소 30여 곳을 추린 '성수 패션맵'을 발행해 제공했다.
  - 패션맵은 서울패션위크 누리집(www.seoulfashionweek.org)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, 시는 다음 시즌에는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 패션과 도시를 연결하는 '패션맵' 프로젝트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.
  
- 또 서울패션위크 시즌마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패션·테크·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는 패션 플랫폼 '무신사'와 글로벌 커피 브랜드 '블루보틀'이 참여(특별 할인, 봉어빵 증정, 캔커피 제공)해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.
  
- 한편 최근 K-패션 미주 시장에 대한 가능성과 높은 기대감 속에 서울시는 2.20.(화)~2.22.(목) 미주권 대표 여성 패션 박람회 코테리뉴욕(Coterie New York)에 '서울패션위크 공동관(총 6개사)'으로 참가, 192만불(47건)의 추가적인 수주 상담을 끌어냈다.

○ ‘서울패션위크 공동관’에는 2024 F/W 서울패션위크 참여 브랜드 중 6개 사(▲그리디어스 ▲메종니카 ▲세컨드 아르무아 ▲한나신 ▲더룸 ▲트리플루트)가 합류했다.

□ 2025 S/S 서울패션위크는 오는 9.3.(화)~9.7.(토) 개최된다. 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‘K-패션 브랜드’에 더욱 가치 있는 세일즈 기회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변화와 시도,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하반기 패션위크를 준비할 계획이다.

□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“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탄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,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다”며 “오는 9월 열릴 2025 S/S 서울패션위크에도 패션 디자이너와 기업, 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2024 F/W 서울패션위크(Seoul Fashion Week) 이미지



포토콜(뉴진스)



패션쇼-줄라이칼럼



패션쇼-아조바이아조



패션쇼-메종니카



쇼룸투어-강남



쇼룸투어-성수



코테리 뉴욕-디자이너 단체 사진  
(左부터 그리디어스, 메종니카, 더룸, 한나신, 트리플루트, 세컨드아르무아)



코테리 뉴욕-부스 전경